

표1. '90 연구조사사업 항목과 성과

항 목	결 과 활 용
○ 쌀 중심의 아침김이식 개발	지도사업반영
○ 쌀가공식품(고영양우유밥) 개발	〃
○ 영양식품의 농가자급방안 조사연구	〃
○ 농가의 가계비관리행태 및 소비의식 조사분석	〃
○ 농촌고령자의 역할확대에 관한 연구	〃
○ 농작업시 에너지절약과 피로경감연구	〃
○ 비닐하우스 농작업증후군 조사연구	〃
○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연구	〃
○ 식품자원의 영양가분석	교육/기초자료
○ 식품성분표 작성연구	〃
○ 농민의 생활개선요구 분석	〃
○ 식단처방전산화 연구	〃
○ 농가주택 실태조사 및 유형별 개선안 작성연구	〃

표2. '91 추진 연구조사 항목

연구분야	항 목
식 생 활	○ 쌀가공식품 개발
	○ 고영양 쌀떡개발
	○ 영양강화미 영양효과 구명시험
	○ 숙채류 조리가공보존 연구
	○ 식품자원의 영양가 분석
	○ 식품성분표(4개정안) 작성연구
농가주택환경개선	○ 농가주택의 단열처리연구
농업노동관리연구	○ 농촌여성의 노동실태 조사
합리적인생활	○ 농촌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경 영 연 구	○ 식단처방전산화 연구
4 분야	10 항목

院에 이관하고 本院에서는 生活지도사 교육 공무원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다. 교육계획은 표3과 같다.

표3. 教育計劃

教育課程	教育期間	教育期數	教育人員
○ 신규생활지도사	5주간	3	180名

教育課程	教育期間	教育期數	教育人員
○ 중견생활지도사	3 〃	2	80 〃
○ 전문교육			380 〃
- 의생활	2 〃	1	40 〃
- 식생활	2 〃	1	40 〃
- 주생활	2 〃	1	40 〃
- 가정관리	2 〃	1	40 〃
- 전 산	2 〃	1	40 〃
- 외국어	6 〃	1	20 〃
○ 식생활개선 협력학교교사	3 일	2	160 〃
계		13	640 명

##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농촌생활개선사업은 농촌생활문화를 주도할 농촌여성 육성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생활환경조성을 목표로 현재 752명의 시군 및 도원·중앙 생활지도인력이 땀을 흘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에 역점을 두었고 성과가 컸던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농촌주거환경사업으로서 국비융자와 지방비 지원을 포함하여 30,730호에 부엌개량, 목욕실 시설을 하였으며, 범 국민적 고향 주거환경개선 돕기운동을 전개하여 92억여원의 모금실적을 올려 이를 6,964호의 농가에 혜택을 주었다. 둘째는, 생활개선부 조직 확대인데, 조직의 수가 많고 인원도 많아 사실상 체계적인 지도가 미흡하였던 새마을부녀회 내의 생활개선부를 재 조직한 사실이다. 이들을 주 구성요소로 하여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을 107,000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실시하였다. 셋째는, 시군 지도소에 성혼상담실을 운영 856쌍의 성혼실적을 올린점이며, 마지막으로, 농촌부녀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기술습득강화의 방법으로 140명에게 의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과정에 관한 1주간의 전문교육과, 생활지도직에 입문한 신규지도사 333명에게 생활지도사로서의 임무와 역할, 사업개황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 등을 주요성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91년도의 본사업의 기본방향은, 종전의 의·식·주 단순과제 위주에서 농민건강, 생활환경, 가정경영에로의 확대전환에 두었고, 지도·보급의 방법도 종전의 순회지도 중심에서 상담 및 컴퓨터를 활용한 생활정보 보급까지 포함하여, 지도단위도 개별농가 중심에서 생활개선부 등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기술지도로 전환해 가고 있다. 각 단위 과제별추진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은 부엌·목욕실을 병행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농어촌발전기금 63억원을 5,250농가에 120만원씩 융자지원 하기로 확정되었고, 농민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쌀중심의 한국형 식생활 정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닐하우스내 작업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174개소에 탈의실, 휴식실, 샤워실 등을 갖춘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을 설치, 활용토록 하고 있다.

농가의 알뜰한 가계관리를 위한 가계부기록지도는 15,00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83년도부터 제작 기록지도해 온 결과를 평가하여 농가실정에

알맞는 가계부양식을 정착시키고 효과적인 기록지도방안을 찾고자, 농가주부 360명과 생활지도사 190명을 대상으로 조사·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농외소득활동 촉진을 위하여 5개소의 중앙시범지역을 선정('90. 5개소), 개소당 80만원씩 지원·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이를 시발로 도 및 시군단위에서 본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음은 물론 인근 농공단지와 연계한 임가공활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다.

농촌청년 성혼돕기 사업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82개 시군지도소의 성혼상담실을 계속 운영하며 각종 “만남의 장”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미혼 남녀의 만남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86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의 결실중 우수한 성혼사례를 모아 사례집 5,000부를 발간. 산업체 근로여성 등에게 배부하여 농촌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자 한다. 한편, 농촌여성의 역할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그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바, 이들 10만명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